

17~8세기 서울 및 近畿 일대 田家時調 형성의 사회사

김창원*

<차 례>

1. 서론
2. 예비적 고찰
3. 近畿의 別墅 경영과 田家時調의 자영농 형상
4. 田家時調의 미의식과 ‘중앙’의 시선
5. 마무리

1. 서론

지금까지 전가시조는 크게 두 가지 관점에서 연구되어 온 것으로 보인다. 하나는 조선시대 양반들의 자연 인식과 미의식의 관점에서 전가시조의 특성과 문학적 전통에 주목한 것¹⁾이라면, 다른 하나는 전가시조의 부각을 17세기 시가사의 중요한 하나의 현상으로 이해하고 여기에 역사상을 부여하려는 시도²⁾였다. 여기에서 진행하고자 하는 필자의 작업은 후자의 연장

* 선문대학교

1) 여기현, 「강호인식의 한 양상」, 『반교어문논집』 제1집, 반교어문연구회, 1988.

권순희, 「전가시조의 미적 특질과 사적 전개 양상」,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0.

2) 김용철, 「<누항사>의 자영농 형상과 17세기 자영농시가의 성립」, 정재호 편, 『한국 가

선상에 있음을 먼저 밝히고자 한다.

17세기 시가사와 관련하여 전가시조의 역사상을 파악하고자 한 지금까지의 연구를 보면, 관점에서부터 현격한 차이가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 김용철의 시각을 먼저 보자. 김용철은 우선 ‘전가시조’를 가사를 포함한 ‘자영농시가’라는 큰 범주로 묶는다. 이어서 그는 16세기 강호시가가 농민과 같은 자영농에서 성장하여 지배계급으로 올라온 재지사족의 권위가 자연을 고답적으로 전유하는 형태로 표출되어 나온 것이라면, 17세기의 이른바 ‘자영농시가’는 지배계급으로서의 재지사족의 권위 대신 자영농이라고 하는 재지사족의 보다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계급적 정체성이 표현되어 나온 것으로 이해한다.

한편, 김홍규는 이와는 매우 다른 관점에서 전가시조의 역사상을 규정하고 있다. 김홍규는 16세기 강호시조를 사림과가 훈구파를 대상으로 하여 벌였던 근본적이고 비타협적인 정치투쟁의 소산으로 전제한 뒤, 17세기 이후 정치 형국이 사림 내부의 정쟁의 시대로 변질되면서 그간 사림이 가졌던 정치적 이념이 희석되고 그 과정에서 사림의 자연관에도 일정한 변화가 따르면서 전가시조가 생성될 수 있었다고 이해한다.

전가시조의 역사상과 관련한 이상 두 가지 관점은 서로 합치점을 찾기 어려울 정도로 상이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 관점은 공히 우리에게 전가시조의 세계상을 포함한 미의식 및 형상세계에 대해 보다 역사적이고 원근법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눈을 주고 있다는 점에서 다같이 큰 의미를 두어야 할 것이다.

오늘 이 시점에서 필자가 다시 전가시조를 논제로 삼고자 한 것은 선행

사문학 연구, 태학사, 1996.

김용철, 「17세기 자영농시가의 성립과 특성」, 신영명·우응순 외, 『조선중기 시가와 자연』, 태학사, 2002.

김홍규, 「16·17세기 강호시조의 변모와 전가시조의 형성」, 『어문논집』 35, 고려대학교 국어국문학회, 1996.

신영명, 「17세기 강호시조에 나타난 田園과 田家の 형상」, 『한국시가연구』 제6집, 한국시가학회, 2000.

연구에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간과되었다고 판단되어서이다. 그것은 바로 전가시조에 관계되어 있는 **지역성**의 문제이다.

현재 전해지고 있는 전가시조를 지역에 좀더 주목해서 볼 때, 전가시조는 17세기 이후 지방의 재지사족에 의해 창작된 것과 이와 달리 서울과 近畿를 중심으로 살았던 재경양반들에 의해 창작된 것으로 대별된다. 뿐만 아니라, 서울을 지역기반으로 하면서 재경양반들의 주변에서 예술 활동을 했던 가객들에 의해 창작된 전가시조 역시 상당수에 달하고 있다. 또한 『청구영언』과 『해동가요』 등의 가집에 무명씨로 전하는 상당수의 전가시조들이 있다. 이들 작품들은 대체로 17~8세기 서울 지역에서 연행되었던 시조들이었다. 이처럼 지역적으로 볼 때 전가시조는 지방과 서울에 걸쳐 두루 나타나고 있지만, 작품수나 작가 수에 있어서 서울 및 근기 지역의 지역적 비중이 보다 높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선행연구에서 전가시조의 역사상을 획일화하여 16~7세기 향촌사회의 변동사와 재지사족의 역사적 경험 속에서 이해하려 했던 방식이 적절한 것이었는지 재고해 볼 필요성이 있다.³⁾ 현재 여러 가집에 전하고 있는 17세기 이후 서울 및 근기 지역 재경양반 작가를 거명해 보면, 선조로부터 서울에 세거하다가 인조반정과 병자호란 등을 거치며 서울의 명문 거족으로 확실하게 자리매김했던 양주조씨 가문의 趙存性, 안동김씨 가문의 金光煜과 金昌業, 의령남씨 가문의 南九萬, 연안이씨 관동파 출신의 李明漢과 李鼎輔가 있다. 또한 중종반정을 거치면서 서울을 대표하는 가문의 하나로 성장했던 풍양조씨 가문의 趙顯命이 있다. 이외 거족의 반열에 들지는 못했지만 서울의 세족으로서의 명망을 잃지 않았던 평강채씨 가문의 蔡裕後가 있다. 이외 왕실 출신으로 영조대에 활동했던 積善君 李在가 있다. 이들은 모두 서울의 명문세족 내지는 왕실 출신들로서, 先代로부터 서

3) 김용철은 이른바 ‘자영농시기’의 주요 원천을 재지사족층으로 이해하고 있다. 김용철 (2002), 323쪽. 그러나 자료적 상황으로 보아 이러한 시각에 동의하기는 어렵다고 보인다.

울과 근기라고 하는 매우 특수한 공간 속에 살면서 자신들의 정체성을 유지했던 인물들로, 지방의 군현단위에서 성장하여 지배권을 행사했던 재지사족들과는 매우 다른 사회적 조건 속에 있었다. 따라서 이들에 의해 창작되어 나온 전가시조를 재지사족의 역사적 경험으로 일원화하여 설명하는 것은 무리라고 할 수 있다. 실제 작품에 있어서도 재지사족과 서울 및 근기 지역 양반들의 전가시조 사이에는 서정 세계나 미의식에 있어서 상당한 차이가 발견되고 있어, 그 형성의 기반과 사회사를 구분해서 접근해 볼 필요성이 요구된다.

이 글의 목적은 바로 이와 같은 문제의식 아래 지금까지 주목되지 않았던 지역성의 문제를 부각하면서, 17세기 이후 서울 및 근기지역에서 생성된 재경양반들의 전가시조를 한 곳에 모아 그 형성의 사회사를 시적 형상과 미의식을 중심으로 하여 집중적으로 검토하는 것이다.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다음 두 가지 사항을 미리 전제해 두고자 한다.

첫째, 본고에서는 지면상 서울을 지역기반으로 하였던 중인 가객들의 전가시조는 논의 대상에서 일단 제외하고자 한다.⁴⁾

둘째, 辛啓榮(1577~1669)의 전가시조 또한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겠다. 신계영은 서울의 세족 출신이지만 그의 전가시조가 지어지게 된 과정이 일반적인 서울양반들의 경우와 많이 다르고, 따라서 그의 시조의 진실에 다가서기 위해서는 이 글에서 논하는 것 이상의 것들이 추가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고 보기 때문이다.⁵⁾

4) 여항육인의 전가시조에 대해서는 일찍이 박노준이 ‘농사시조’라는 이름으로 다룬 바 있다(『靑丘歌謠와 市井의 情恨』, 『조선후기 시가의 현실인식』,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원, 1998, 312~322.).

5) 신계영은 영산신씨로 그의 가문은 대대로 서울에 거주해 왔던 서울의 세족이었다. 신계영 가문이 예산에 입향하게 된 것은 신계영 당대에 와서이다. 이 시기에는 정치적·경제적인 목적으로 서울을 떠나 지방의 농장을 찾아 낙향하는 가문이 많이 보이는데, 신계영도 그 경우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신계영의 가사 <월선현십육경가>와 시조 <전원사시가>는 예산 이주와 함께 지어진 것이다.

2. 예비적 고찰

이 장에서는 전가시조를 본격적으로 다루기에 앞서 서울 및 근기지역 전가시조 작가의 가계사를 주로 통혼과 관련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통혼의 양상이 중요하다고 본 것은 거기에서 전가시조의 실체에 접근할 수 있는 실마리가 찾아질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17세기에서 18세기 초기에 이르는 시기에 전가시조를 남기고 있는 서울양반들은 대체로 서인에서 노론으로 당색을 유지해 간 가문 출신들이며, 숙종대의 환국과 경종·영조대의 사옥으로 몇 차례 시련을 겪긴 했지만 조선 후기 내내 권력의 핵심부를 장악했던 집안의 인물들이었다. 족보를 통해 전가시조 작가들의 가계를 들여다 보면 한 가지 뚜렷한 공통적 현상이 발견된다. 전가시조 작가들은 자신의 당대에 혹은 선대로부터의 혼인을 통해 왕실 내지는 부마·공신집안 또는 서울의 거족들과 겹겹이 얹혀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 필자는 이러한 형태의 통혼을 ‘권력의 재생산 구조’라고 바꾸어 말해도 크게 무리는 아닐 것이라고 생각한다.

먼저 조준성을 보도록 하자. 양주조씨 조준성 가문은 조준성 대에 와서 인조의 비인 장렬왕후를 배출한 명문이었다. 조준성의 차남 창원은 國舅인 한원부원군 崔鐵堅의 사위가 되었고, 셋째 啓遠은 평산신씨 신희의 사위가 되었다. 신희는 선조의 駙馬였던 東陽尉 신익성의 아버지였다. 한편, 조준성의 손녀는 신희의 차남 신익전과 혼인했고, 또 다른 손녀는 仁祖의 비인 莊烈王后였다. 조준성의 증손인 泰相은 의령남씨 남구만의 사위가 되었고, 증손 泰開는 선조의 아들인 仁興君의 사위가 되었다.⁶⁾

다음, 안동김씨 김창업과 김광옥을 보도록 하자. 김창업의 조부인 김광찬은 인목왕후의 아버지인 연안 김제남의 사위였고, 김창업 또한 종실인 益豐君 漣(臨海君의 孫)의 사위가 되었다. 김창업의 아들 우겸은 우의정을 지낸 고령신씨 申翼相의 손녀이자 좌의정을 지낸 덕수이씨 외재 이단하의

6) 『楊州趙氏族譜』, 정문연 소장본(MF35-2086), 1743년(영조 19).

외손녀와 혼인했고, 신겸은 전주이씨 李頤命의 딸과 혼인했다. 이이명의 부인은 광산김씨 김만중의 딸이었고, 김만중은 숙종의 初妃인 仁敬王后의 숙부였다.

한편, 김광옥은 이직언의 사위였는데, 이직언은 효령대군의 5대손이었다. 그리고 김광옥의 아들(계자) 壽一은 당대의 서울을 대표하는 거족인 연안이씨 이정귀의 차남인 李昭漢의 딸과 혼인했다.⁷⁾

다음, 의령남씨 남구만을 보도록 하자. 남구만의 누이는 반남박씨 박세당과 혼인했다. 남구만의 아들 鶴鳴의 첫째 부인은 영의정을 지낸 이경여의 손녀이자 이민서의 딸이었으며, 둘째 부인은 이시현의 딸이었는데, 이시현은 仁穆王后의 아버지인 김제남의 외손이었다. 그리고 남구만의 딸은 양주조씨 조존성의 증손인 조태상과 혼인했다. 조태상은 인조 장렬왕후의 조카였다. 그리고 손자인 處寬은 영의정을 지낸 柳尙運의 손녀이자 유봉휘의 딸과 혼인했다.⁸⁾

다음, 연안이씨 이명환과 이명환의 증손인 이정보를 보자. 이명환의 부인은 선조의 부마인 반남박씨 금계군 박동량의 딸이며, 아들 端相의 부인은 우의정을 지낸 전의이씨 李行遠의 딸이었다. 그리고 손자인 禧朝의 부인은 안동김씨 김수흥의 딸이었고, 손자 賀朝의 부인 역시 안동김씨 金昌國의 딸이었다. 그리고 손녀 사위로는 안동김씨 김창협과 여흥민씨 민정중의 아들인 민진후, 그리고 광산김씨 김장생의 증손인 金萬均이 있었다. 모두 당대 거족 출신들이었다. 이명환의 손녀 가운데 하나는 眞宗의 妃인 효순왕후였다.

한편, 이명환의 증손인 이정보의 조부는 成朝인데, 그의 부인은 영의정을 지낸 풍양조씨 조현명의 고모이며, 이정보의 형 恒輔의 부인 역시 영의정을 지낸 남양홍씨 洪命夏의 손녀였다. 그리고 이정보의 계자인 健源은 안동김씨 金濟謙의 증손녀와 혼인했다.⁹⁾

7) 『安東金氏世譜』, 정문연 소장본(MF35-2083~5), 1833년(순조 33).

8) 『宜寧南氏族譜』, 1900년(光武 4).

18세기 초기 영조대에 활동한 조현명의 경우를 보자. 조현명의 조부 相鼎은 서울의 명문인 남양홍씨 洪命一의 딸과 혼인했는데, 홍명일은 영의정을 지낸 洪瑞鳳의 아들이었다. 조현명의 아버지 仁壽는 광산김씨 김장생의 증손인 金萬均의 딸과 혼인했고, 숙부인 大壽는 영의정을 지낸 徐文重의 딸과 혼인했다. 서문증은 선조의 부마인 達城尉 서경주의 손자였다. 그리고 조현명의 고모부 가운데 한 사람은 연안이씨 이정보의 조부인 李成朝였다. 조현명의 형 文命은 영조대 양무공신에 책록된 인물로, 부인은 안동김씨 金昌業의 딸이었다. 그리고 대사간을 지낸 형 景命의 부인 역시 안동김씨 김상용의 후손인 金時傑의 딸이었다.¹⁰⁾

이상의 인물 외에 전가시조를 남기고 있는 서울양반으로 평강채씨 채유후와 종실인 적선군 이재가 있다. 채유후의 초취부인은 李曙의 딸이고, 재취부인은 尹民獻의 딸이었다. 이서는 종실로 정국일등공신에 책록되었고 후에 完豐君에 봉해진 인물이었으며, 윤민현은 공신이었던 안동김씨 花山君 金澍의 외손이었다.¹¹⁾ 파평윤씨 윤민현 집안은 아버지 尹儼을 비롯하여, 윤민현과 동생인 民逸, 그리고 윤민현의 아들인 絳, 손자인 趾完·趾善·趾美·趾仁, 증손인 容이 모두 문과에 급제한 집안으로 서울을 대표하는 명문의 하나였다. 積善君 李在는 영조대 인물로 西川君 洸의 손자였다.

그렇다면, 통혼에서 드러나는 이 같은 현상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앞서 말했듯이 그것은 서울양반들의 중앙 권력의 유지와 재생산을 위한 욕망의 사회적 발현태였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서울양반들에게서 드러나는 이러한 통혼의 양상과 전가시조는 대체 어떤 관계에 있는 것일까?

9) 『延安李氏館洞派譜』.

10) 『豐陽趙氏舊譜合編』, 보경문화사, 1990.

11) 『平康蔡氏族譜』, 경문연 소장본(MF35-2148~50), 1875년(고종 12).

3. 近畿의 別墅 경영과 田家時調의 자영농 형상

전가시조의 주요한 특징의 하나는 자영농의 체험적 서정의 강화이다. 그리고 그것은 농사에 대한 작자의 체험이 없었다면 이루어내기 어려웠다고 할 정도로 성취 또한 만만치 않다. 물론 이때의 자영농은 진짜 농사꾼은 아니다. 그것은 소박한 은일의 도를 추구하는 사족의 모습이다. 따라서 여기서의 체험적 서정이란 현실에서의 자영농의 형태가 사족에 의해 받아들여져 굴절된 형태로 시조 속에 투영된, 미적 세계로서의 자영농 세계를 말한다. 우선 대표적인 시조 몇 수를 읽어 보도록 하자.

아히야 粥早飯 다오 南畝에 일 만해라
서투론 짜부를 늘 마조 자부려노
두어라 聖世躬耕도 亦君恩이시니라 (趙存性)

東窓이 발갓느냐 노고지리 우지진다
쇼칠 아히는 여태 아니 니러느냐
재 너머 스래 긴 밭출 언제 갈려 흥느니 (南九萬)

십벌 지자 종다리 췌다 호뮈 메고 사립나니
긴 습플 찬 이슬에 뵈즘방이 다졌거다
아히야 時節이 도흘세면 옷시 져다 關係호라 (李明漢)

헌 샷갓 자른 되룽 삶 집고 흙의 메고
논쑥에 물 불이라 밧기음이 엇더튼이
암아도 朴杖基 불이술이 틈 업슨가 흥노라 (趙顯命)

먼저 조존성의 시조를 보자. 이 시조가 형상화하고 있는 자영농의 밭갈이는 고고한 정신적 행위의 하나로 은자들이 실천했던 밭갈이와 크게 다르지 않다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조 속의 주인공은 제대

로 된 아침을 챙기지 못할 정도로 바쁜 일상 속에서 힘겹게 자신의 농토를 일구며 살아가는 농사꾼의 체험에 가까이 다가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남구만과 이명환의 시조는 매우 감각적이고 생동하는 시적 상상력을 통해 농사꾼의 일상과 생활정서를 효과적으로 펼쳐내고 있다. 특히 이명환의 시조에서, 한 해 농사만 잘 된다면 옷 젖는 것쯤은 관계없다는 종장의 진술은 농사꾼의 생활정서에 대한 섬세한 감각을 보여준다.

조현명의 시조는 가뭄 끝에 내리는 단비에 눈밭을 돌보느라 눈코 뜰 새 없는 농부의 형상을 눈에 보일 듯 사실적으로 잡아내고 있다. 장기 한 판에 탁배기 한 잔의 여유가 없을 것 같다는 진술 속에서 은거자의 낭만은 찾아보기 어렵다.

선행연구에서 전가시조의 자영농 형상은 자연 인식의 관점에서 주목되어 왔다. 강호시조가 자연을 심미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과 달리 이 시조들은 자연을 땀과 노동의 대상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이다.¹²⁾ 그리고 일부에서는 이 차이를 역사적인 차원으로 발전시켜 이러한 자연 인식의 차이를 16세기 사림파의 근본적 이념이 17세기에 들어 회석되어 간 징표로 보기도 한다.¹³⁾ 그런데 여기서 후자는 사림파의 도덕적 이상과 이념적 긴장의 완화가 왜 하필 질박한 미의식에 기반한 전가시조의 형태로 나타나게 되었는지, 그리고 전가시조에서 자영농의 체험적 서정이 전경화되고 있는 것은 무엇 때문인지에 대해 좀더 실증적인 해명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한편, 최근 한 연구자는 17세기 전가시조의 자영농 형상의 실체를 보다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해 田家漢詩와의 관계에 주목해 보기도 하였다.¹⁴⁾ 그러나 그가 지적했듯이, 전가한시는 국가적 수탈에 대한 비판의 성격을 띠거나 그 반대로 지배자들에 의한 농민생활의 미화의 성격을 띠는 것들

12) 여기현, 위와 같은 곳.

13) 김홍규, 위와 같은 곳.

14) 김용철(1992), 321쪽.

이 많았고, 그 결과 그만큼 화자들은 관찰자의 성격을 가지고 있었으며 농부를 대신하여 읊는다는 代作의 형식을 취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이에 비해 17세기 전가시조는 화자 자신의 직접 체험으로 나타나고 있어 한시와는 성격이 매우 다르다고 할 수 있다.

필자는 앞에서 전가시조의 한 부분이 지역적으로 서울과 깊이 관계되어 있으며, 그 주요한 작가군의 한 부분이 서울과 근기를 지역적 기반으로 하여 활동했던 서울양반들이었다고 지적하였다. 그리고 그들의 가계사를 통혼을 중심으로 살펴보면서 거기에서 서울 집중적, 중앙 중심적 멘탈리티가 현저하게 나타나고 있는 현상에 주목하였다. 거기에서 필자는 이 같은 서울 집중적, 중앙 중심적 멘탈리티가 전가시조의 실체에 접근할 수 있는 하나의 실마리가 될 수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제 여기에 집중해 보도록 하겠다.

이건창의 『黨議通略』을 보면, 인조반정의 주체들이 광해군과 대북세력들을 축출한 뒤 은밀히 모여 밀약을 했다는 기사가 나오는데, 그중 하나가 ‘近畿에서 벗어나지 말라’는 것이었다고 한다.

양반들이 서울 근처에 살 만한 곳을 물색하게 되는 가장 주된 이유는 서울에서 멀리 벗어나지 않으려는 동기에서다. ‘사람이 살 만한 땅’이란 뜻의 ‘可居地’는 주로 양반들이 서울을 떠나야 할 때 고심하는 주제다. 자신의 거주지가 서울과 너무 멀리 떨어져 있으면 다시 올라오지 못할 것 같은 불안감 때문에 대부분은 후손들을 위해서라도 서울 근처에 살 만한 곳을 찾게 된다. 『당의통략』의 야사적인 밀약 내용도 이러한 정서를 반영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처럼 양반들이 서울 근처에 거주지를 물색하는 것과 그들이 왕실 및 거족들과의 혼인을 고수하는 현상은 동전의 앞뒤와 같은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그러한 현상들은 다같이 ‘중앙’으로서의 서울 중심적 사고의 반영이기 때문이다.

양반들이 서울과 지방에 둔 집을 각각 京邸와 鄉第로 표현할 때, 그들이 근기에 둔 집을 別墅·別業·野墅라 부른다. 근기일대는 이미 조선 이전부

터 당대의 거족들 대부분이 연고를 두고 있던 지역으로 조선에 들어와서도 이전의 松都 중심에서 한양 중심으로 그 축이 조금 남쪽으로 이동하였을 뿐 서울의 벼슬살이에서 밀려나면 복직이 될 때까지 잠시 머무는 집인 별서를 마련하고 있던 곳이다.¹⁵⁾

그런데 양반들이 누대에 걸쳐 관리를 배출하면서 거주의 중심이 서울로 옮겨질 때, 잠시 머무는 집인 별서가 확대되어 향제화되기도 한다. 이렇게 별서가 향제화되면서 주로 서울의 경저와 근기의 별서만을 이동하는 사회 집단이 형성되는데, 우리는 이들을 흔히 ‘서울양반’이라고 부른다.

한편, 근기의 별서는 지방의 향제와 함께 서울양반들에게 경제적으로도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 17세기 들어 서울의 거족들의 경우 근기일대에 지속적으로 별서를 확대해 가는 모습이 자주 보이는데, 그것은 별서로부터 서울 생활에 필요한 경제적 힘이 나오기 때문이다. 서울양반들이 경저를 떠나 별서에 머물 때 흔히 표방하는 것이 은거이지만, 기실 그 은거 생활의 실질적인 내용 가운데 하나로서 별서의 경영이라는 매우 현실적인 경제 활동이 있었다는 사실 또한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서울양반들이 벼슬에서 물러나 별서에 머물 경우 자신의 상을 스스로 농사짓는 자영농 형상에 투사하는 것은 매우 자연스런 일이었다고 할 수 있다. 더욱이 전가시조의 자영농 형상은 한편으로는 도연명 형상이기도 하다는 점에서 양반들이 선호하였다고 할 수 있다.

양반들이 근기의 별서에 머물 때 자신의 상을 자영농에만 투사했던 것은 아니다. 자영농 형상과 더불어 가장 많이 나오는 것 중의 하나가 어부 형상이다. 김광옥의 <栗里遺曲>이나 조준성의 <呼兒曲>에서 자영농과 어부 형상은 같은 비중으로 나타난다. 근기의 별서에서 漁父歌가 자주 나타나는 것도 매우 자연스런 일이었다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별서를 잡을 때 가장 중요한 것 중의 하나가 서울 도성과의 접근성이었고, 그런 이유로

15) 정승모, 「경저·향제·별서와 조선후기문화의 지역성」, 정두희 편, 『한국사에 있어서 지방과 중앙』, 서강대학교 출판부, 2003 참고.

근기의 별서는 대부분 나루가 발전한 한강변에 포진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한 가지 흥미로운 것은 이들 어부가에서 ‘어약연비·운영천광’과 같은 도학적 심미의 세계가 좀처럼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필자는 이러한 현상이 한강이라고 하는 강이 지니는 정서와 결코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한강은 조운선을 비롯한 상선의 왕래가 빈번한 곳이었고, 더욱이 양반들의 별서가 있던 지역은 나루가 발전한 곳이라서 왕래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따라서 그런 한강에서 도학적 이미지를 떠올린다는 것은 정서상 무리라고 할 수 있다. 한강변의 별서에서 나온 시조 가운데 가사 <樂隱別曲>을 지은 의령남씨 南道振(1674~1735)의 작품에서만 그러한 이미지의 세계가 발견되고 있다. 이는 남도진의 별서가 있던 곳이 근기에서도 비교적 외곽지역으로, 한강에서도 특히 한산했던 가평의 용문산 인근이었다는 사실과 결코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자영농과 어부 형상과 더불어 한 가지 주목할 만한 문학적 형상이 院主이다. 이는 16세기 鄭澈(1536~1593)의 시조에서만 나타나는 것이지만, 나름의 전통이 있었던 형상이기도 하고 또한 근기의 별서가 갖는 특성을 아주 극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형상이라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新院 院主 | 되어 널 손님을 지내옵니
가거니 오거니 人事도 하도할사
안자서 보노라하니 슈고로와 호노라 (진청 77)

주지하듯이, 정철의 별서가 있던 곳은 고양 새원[新院]의 송강촌이었다. 송강촌에는 현재 정철의 부모 및 큰아들 기명의 묘가 있으며, 정철 자신도 이곳에 묻혔다가 1665년에 충북 진천군 문백면 봉죽리에 있는 地藏山으로 이장되었다. 정철 집안이 언제 고양에 별서를 마련했는지는 명확하지 않지만, 정철 선대의 묘가 주로 인근의 파주·교하 지역에 있고, 고조부 自淑의 묘가 고양 원당에 있는 것으로 보아 일찍부터 이곳에 지역적 연고를 두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정철의 별서가 있던 새원은 조선시대 육로 교통의 요지로, 서울에서 개성으로 통하는 이른바 ‘關西大路’의 길목이었다.¹⁶⁾ 따라서 새원 별서는 거리상으로 서울과 아주 가까운 곳이었을 뿐만 아니라, 교통의 요지라서 늘 행인들로 붐비는 곳이었다. 별서 주위의 풍경이 그러했던 것은 앞서도 언급했듯, 도성과의 접근성 때문이었다. 바로 이러한 별서가 갖는 특성이 오가는 행인들을 채우고 먹여주는 이른바 ‘院主’라고 하는 특유의 인물 형상에 자신을 빗대게 한 것이다. 물론 이 시조에서 ‘원주’는 대중 속에 파묻혀 이름을 숨긴 채 살고 있는 逸民의 하나이다.¹⁷⁾

전가시조의 자영농 형상은 단순한 문학적 수사가 아니다. 그것은 근기의 별서 경영이라는 매우 구체적인 체험에 기반하여 창조되어 나온 문학적 형상이라고 할 수 있다. 전가시조의 자영농 형상은 어부나 원주 등의 인물 형상과 더불어 근기의 별서라고 하는 특유의 공간을 기반으로 하여 형성되고 의미를 갖는 문학적 형상이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전가시조의 창작 주체들은 대부분 그들 당대에 근기일대 별서의 경영 및 농장 개발의 주역으로 활동한 경험을 가지고 있다. 조존성¹⁸⁾과 김광옥·김창업¹⁹⁾, 남구

16) 임금이 개성 방면으로 행차를 하게 되는 경우, 도성을 나와 弘濟院-박석고개[磚石峴]-새원-碧蹄驛-分水院-廣灘-坡州-長湍 길로 가는 것이 상례였다.

17) 이 시조의 ‘원주’는 정철의 <관동별곡>에 나오는 ‘홍장고사’와 관계된 인물로, 여말선초에 활동했던 趙云佐(1332~1404)의 고사에서 모티프를 얻은 것이다. 조운호는 공민왕~조선 태종대에 걸쳐 중앙에서 벼슬살이를 하다가 그의 별서가 있던 豐壤 곧 양주에 물러나와 板橋·沙平 두 院을 중수하고 원주라 자칭하며 해어진 옷과 짚신으로 천민들과 함께 노역하다가 생을 마감했다고 전해진다(『국역 신증동국여지승람』, 11권, 京畿, 楊州牧條 참고).

18) 양주조씨 조존성 집안은 양주의 대표적인 토족의 하나로 양주의 金村 일대에 대규모의 농장을 소유하고 있었다. 조씨 일가는 조존성의 부친 曄대에 와서 충청도 서해안의 보령에 농장을 개발하는 모습이 보인다. 조존성 일가의 향제는 원래 충청도 全義에 있었는데 아버지 曄이 보령에 살고 있던 경주이씨 李夢奎(이항복의 당숙)의 딸과 혼인을 하여 이를 계기로 보령과 인연을 맺게 된 것이다. 그리고 조존성의 아들대에 와서 다시 보령 인근의 해미에까지 농장을 확대해 가는 모습도 나타난다. 조선 중·후기에 오면 서울의 거족들이 근기의 별서에서 지방의 향제로 이동하며 경저와 별서, 향제를 모두 갖추게 되는 경우를 자주 보게 되는데, 조존성 일가의 향제 개발도 동일한 사례라 할 수 있겠다. 신흙은 조존

만²⁰⁾, 조현명²¹⁾, 이명환·이정보²²⁾ 등에게서 모두 그러한 사실들이 발견

성의 부인 龍仁李氏의 행장에서 이씨부인에 의해 조씨의 가세가 크게 일어나 “배와 수레로 운반하는 물품이 마을 길에 연달아 들어오고, 곡식 가마니와 비단 상자로부터 초·장·소금·된장·누룩·말린 고기·뽕나무·그릇·돛자리에 이르기까지 모두 여유가 있게 되었다”고 하였다. 이는 조준성 당대에 와서 조씨의 살림살이에 커다란 변화가 왔다는 말인데, 그것은 바로 근기의 별서와 지방의 농장 개발로부터 온 것이라고 보아도 무리는 아닐 것이다. 조준성은 1613년 계축옥사로 방축되어 6~7년 가량을 용산의 별서에 칩거했으며, 이때 가끔 보령의 향제로 내려가 머문 적도 있었다. 이 장시간의 정치 공백기를 채운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별서와 향제의 농장 경영이었다고 짐작된다(『韓國地理志叢書 邑誌7』(충청도①), 아세아문화사, 1984, 575~576쪽; 趙泰東(朝鮮) 編, 『楊山趙氏世稿』; 『楊州趙氏族譜』; 申欽, 『象村集』, <貞夫人李氏行狀> 참조.).

19) 안동김씨 가문이 안동으로부터 상경한 것은 김광옥으로부터 5대조인 金璫(1479~1544)대이다. 안동김씨는 서울의 경지와 함께 근기인 양주 石室에 별서를 마련한 뒤, 이곳 석실 별서를 중심으로 근기일대에 지속적으로 전장을 확대해 가는 모습을 보여준다. 김광옥의 행주 별서와 김창업의 화전 별서도 그 일환이었다. 김광옥은 계축옥사로 방축되어 10여년을 고양 행주의 별서에 머물렀는데, 이때까지만 해도 행주 별서는 잠시 머무는 집에 지나지 않았다. 그러나 김광옥이 여기에 오랜 세월 머물면서 주변의 토지를 매입하는 한편, 인근 한강변에 歸來亭을 세우는 등 별서 경영에 많은 힘을 기울인 결과, 그의 후손대에 와서는 이곳 별서가 향제로 발전하게 되었다. 김광옥의 아들인 壽一과 손자인 盛最가 이곳 행주에 눌러 살았고, 증손인 時佐代부터는 묘지 또한 종래의 석실에서 행주로 바뀌고 있다. 이러한 묘지의 변화는 행주가 김광옥 가계의 송추지향으로 완전히 자리를 잡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바로 이와 같은 거주의 발판이 김광옥의 행주 은거와 함께 만들어졌던 것이다.

한편, 김창업은 1681년 進士만 하고 별서가 있던 서울 東郊에 은거하다가 1689년 기사환국이 일어나자 형들과 함께 영평에 들어가 숨어살았다. 그러다가, 1694년 환국과 함께 다시 동교로 돌아와 젊은 시절을 보내다가, 후에 다시 행주의 花田으로 거주지를 옮긴다. 그의 호 老稼齋는 바로 화전 별서에 마련한 서실의 이름이었다. 김창업은 이곳 화전 별서에서 나머지 생을 살다가 가까운 長湍에 묻혔고, 장남 우겸 또한 이곳에 머물다가 아버지와 같은 곳에 묻혔다. 매장지의 중심이 종래의 석실에서 화전으로 바뀐 셈이다. 이러한 사실은 김창업이 이곳 화전 별서를 자기 가계의 세거지로 계획하고 입거했다는 것을 의미하며, 거주의 변동과 함께 세거에 필요한 농장의 개발 등 본격적인 별서의 경영이 이루어졌을 것이라는 저간의 사정을 짐작할 수 있다(『安東金氏世譜』; 金光煜, 『竹所集』(국립중앙도서관소장본); 金昌業, 『老稼齋集』(문집종간 175) 참조.).

20) 남구만의 집안은 본래 충청도 결성에 향제가 있었다. 그러다가 남구만대에 와서 본격적으로 근기의 양주·용인 등지에 별서를 경영하기 시작한다. 이 과정에서 결성에 있던 선영이 용인으로 옮겨졌고, 남구만 또한 사후 이곳에 묻혔다. 용인 별서는 후손대에 와서 항제화하였다(『藥泉年譜』(정문연소장본); 『宜寧南氏族譜』 참조.).

21) 조현명 집안은 도봉산 인근의 양주 海等村(倉洞)에 별서를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

되고 있다. 전가시조의 작가들은 당대에 자신의 가계가 보유하고 있던 기존의 별서를 확대하거나 또는 근기에 새로운 별서지를 물색하여 入鄕·개발하여 후손들이 그곳을 향제화하고 눌러 살 수 있는 세가의 토대를 마련한 인물들이다. 전가시조가 보여주고 있는 자영농의 체험적 서정의 기반에는 이처럼 근기의 별서 경영이라는 매우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경제 활동이 있었다는 사실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렇다면 전가시조의 자영농 형상과 그 체험적 서정의 기반에는 궁극적으로 ‘중양’으로서의 서울이라는 권력이 자리 잡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서울이 갖는 ‘중양’으로서의 권력이 근기 특유의 지역성을 조장하면서 別墅라고 하는 특수한 거주 형태가 만들어지는 동시에 이와 함께 발전한 시조가 전가시조라 하겠다.

난다. 조현명 집안은 본래 충청도 林川에서 성장하여 상경한 집안인데, 상경의 계기는 6대조 世勳이 중종반정공신에 책록되어 양주 해동촌 일대에 사패지를 받음으로써 이루어졌다. 이후 후손들이 이곳에 선영을 마련하고 눌러 살면서 해동촌 일대는 풍양조씨의 세거지로 발전하게 된다. 그러나 조현명의 직계의 경우에는 충청도 임천의 향제를 여전히 유지한 채, 해동촌의 별서는 일시적인 우거지로서만 기능하고 있었다. 그러다가 조현명 당대에 와서 거주의 변화가 오는데, 그것은 해동촌의 별서를 향제화하는 것이었다. 조현명은 1724년(영조 즉위)에 해동촌에 새로 집을 짓고 입거하였고, 1744(영조 20)년에는 이곳에 喜雨亭을 짓는 등 세가의 토대를 확실히 다져나가는 모습을 보여준다(『豐壤趙氏舊譜 合編』, 下, 보경문화사, 1990 ; 趙顯命, 『歸鹿集』(문집총간 213), <名吾亭記> 및 <自著紀年> 참조.).

22) 이들이 속한 연안이씨 계파를 흔히 관동파라 하는데, 그것은 이들의 경지가 서울의 성균관 동쪽에 있었기 때문이다. 관동파의 별서는 본래 선영이 있던 용인의 文殊山과 광주 文暎山 인근에 자리잡고 있었는데, 이명환 대에 들어서면서부터 근기의 여러 곳으로 별서를 확대해 가는 모습이 나타난다. 이명환은 가평의 조종천 인근에 새로이 별서를 경영하고, 아버지 월사 이정귀의 유택을 용인의 선영에서 이곳으로 이장한다. 가평의 별서는 후에 향제화한다. 그리고 이명환의 아들 一相과 端相, 그리고 일상의 아들 成朝에 의해 관동파의 별서는 도성 동쪽의 양주로까지 확대된다. 한편, 이명환의 증손이자 이정보의 아버지인 雨臣이 광주의 鶴灘(학여울) 별서에서 살았고, 이정보가 이곳에 누정을 짓고 은거한 것으로 보아 이들 부자대를 거치면서 학탄의 별서를 본격적으로 개발·경영한 것으로 짐작된다(『延安李氏館洞派譜』; 延安李氏館洞派 編, 『延李文庫』, 驪江出版社, 1987; 김학수, 「제천 연안이씨 명암가문의 가계와 사회경제적 기반」, 『고문서집성』 55, 한국정신문화연구원, 2001 참조.).

4. 田家時調의 미의식과 ‘중양’의 시선

앞에서 우리는 재경양반의 전가시조를 ‘중양’으로서의 서울이 갖는 권력 관계 속에서 이해해 보고자 하였다. 이 장에서는 전가시조에 투영되어 있는 미의식을 중심으로 작품 세계를 살펴 가면서 앞의 논의를 보강하고 확충해 나가고자 한다.

서울 및 근기지역 전가시조는 앞서 살펴본 시조와 같이 자영농의 형상을 창출한 작품보다는 소박한 미의식과 시골의 세계를 형상화하는 데 더 주력하고 있다.

식벽비 일긴 날에 일거스라 아희들아
 뒷피 고소리 하마 아니 자라스라
 오날은 일것거 오너라 식술 安酒 흐리라 (李在)

덜가마 조히 씻고 바회 아래 십물 기러
 뽕죽 들게 뿌고 저리지이 쓰어내니
 世上에 이 두 마시아 늬이 알가 흐노라 (金光煜)

崔行首 밖달힘흐새 趙同甲 곳달힘흐새
 들뽕 계뽕 오려 點心 날 시기소
 每日에 이령성 굴면 므슴 시름 이시라 (金光煜)

ㄱ을 打作 다 흐 후에 洞內 모회 講信홀 제
 金風憲의 메덧이에 朴勸農의 되롱춤이로다
 座上에 李尊位는 拍掌大笑 흐덜아 (李鼎輔)

이재의 시조는 자연의 소박한 음식을 먹고 사는 자영농의 미의식을 형상화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고사리는 백이숙제의 그것과는 달리 거칠지만 자연 그대로의 때 묻지 않은 농가의 먹거리이다.

김광옥의 시조들 또한 소박한 먹거리를 즐기며 자족하는 자영농의 세계를 형상화한다. 전가시조는 많은 경우 이처럼 생활에 친근한 언어들을 통해 자연의 수확을 먹고 사는 인간의, 자연 그대로의 생활을 형상화한다.²³⁾

이정보의 시조는 추수 후 동네 강신하는 모습을 형상화하고 있는데, 이 시조에서 취하여 춤추고 박수치며 강신하는 마을 사람들의 세계에는 어떤 갈등도 없다.

이 시조들은 앞장에서 보았던 체험적 서정의 시조들과는 달리 낭만성이 짙게 배어 있다. 그것은 달리 말해 이 시조들에 창작 주체의 특수한 의식이 개재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시조들에서 자영농은 모두가 ‘시골’이라는 낭만적 세계 속에 존재한다. 그리고 바로 이 ‘시골’이라고 하는 낭만적 공간이 지방의 재지사족이 가사를 통해 형상화하고 있는 자영농의 공간과 다른 중요한 차이이기도 하다. 가령 박인로의 <누항사>에서 자영농이 사는 세계는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차이가 엄연히 존재하고, 소주인의 모습에서 나타나듯 각박한 인심이 지배하고 있는 매우 현실적이면서도 갈등적인 공간이다. 이 점은 정훈의 <우활가>도 마찬가지다. 정훈의 자영농은 항상 부족하기만 한 가난 속에 둘러싸인 존재이다. 다만 그는 가난에 굴하지 않고 잘 견뎌내고 있을 뿐이다. 따라서 이 자영농의 기저에는 고된 노동 뒤에도 언제나 부족하기만 한 농촌의 전형적인 현실이 배경에 깔려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위 시조들의 낭만성은 어떻게 발생하는가? 그것은 이 시조 속의 ‘시골’이라는 공간이 인위와 문명의 표상이자 한편, 온갖 욕망의 집합소로서의 세속 서울에 대비하여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에서 찾을 수 있다. 그래서 이 시조들에서 자영농이 먹고 사는 ‘고사리’, ‘팔죽’, ‘저리지’ 등이 지닌 자연성·소박성을 비롯하여, 춤추고 노래하며 강신하는 마을 사람들의 天真은 모두 人爲로서의 문명 내지는 돈으로 대변되는 세속 서울에 대비된 시골 이미지의 변주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은 아래의 사설시조에

23) 김용철(2002), 311쪽.

서 좀더 선명하게 부각되고 있다.

李座首는 암소를 타고 金約正은 질장군 메고
南勸農 趙堂長은 취하여 뒤풀리며 杖鼓 舞鼓에 동터럭궁 춤추는괴야
峽裏에 愚氓의 質朴天真과 太古淳風을 다시 본 듯하여라 (진청, 524)

이 시조 또한 김광옥의 시조처럼 가을 추수가 끝난 뒤 마을 사람들이 모여 강신하는 현장을 형상화한 것이다. 그런데 김광옥의 시조에 비해 이 시조에서 암소 타고 질장군 메고 취하여 춤추면서 강신하는 마을 사람들의 세계는 도연명의 <도화원기>처럼 이 세상에 있을 법하지 않은 원시적 신비로움마저 느끼게 한다. 그렇다면 이 시조에서와 같은 신비한 시골의 이미지는 어떻게 해서 만들어지는 것일까?

草廬 李惟泰(1607~1684) 집안은 대대로 서울에 거주하면서 벼슬을 한 경주이씨 집안으로, 임진왜란 말기에 이유태의 아버지 李曙(1570~1616)가 그의 장형인 時와 함께 전장이 있는 錦山으로 낙남하였다. 금산에 정착한 뒤 전장을 확대하고 왕성한 사족 활동을 전개하면서 향제의 기반을 다져나갔던 이서는 임종을 앞두고 자식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다고 한다: “우리 집안은 대대로 서울에 거주하며 벼슬이 끊이지 않았었다. 내가 남쪽으로 내려온 지 벌써 수십 년이 지났고, 이제 너희들이 성장한 것을 보고 비로소 서울로 올라갈 마음을 먹었는데 일이 그르쳐 버렸으니, 너희들이 장차 鄉人의 신세를 면하지 못하겠구나! 어찌 슬프지 않겠는가?”²⁴⁾ 서울에서 태어나 자란 이서에게 있어서 서울은 항상 문화·문명의 표상이었고, 지방은 무식·무지의 표상이었던 것이다.

한편, 정약용은 강진의 유배지에서 근기의 마제에 살고 있는 아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우리나라는 서울의 문밖에서 몇 십리만 떨어져도 태고처

24) 先君臨窆 教之曰 吾家世居京城 簪組不絕 始吾落南 已數十年 見汝等長大 始有返舊之意 吾今已矣 汝等將不免爲鄉人矣 豈不悲哉 然汝爲兄弟之長 率群幼以居 不墜其家 則吾死瞑目矣 因嗚咽流涕(李惟泰, <伯氏柳谷李公行狀>, 『草廬集』, 卷22.).

럼 원시사회(鴻荒世界)가 되어 있어, ... 사람이 살 곳은 오직 서울의 십리 안팎뿐”이라고 하였다. 이어 그는 자식들에게 어떠한 난관이 있어도 近畿를 벗어나지 말라고 당부하면서, 만약 근기에서 밀려나게 되면 “노루나 산 토끼처럼 문명에서 떨어진 무지렁이가 돼버릴 뿐”이라고 경고한다.²⁵⁾

여기서 정약용은 서울과 지방을 문명과 무식으로 대비시키고 있다. 이 대비 속에서 서울과 지방은 우열 관계를 이루며, 지방은 경멸의 대상이 된다. 우리는 정약용이 보여주는 이러한 의식을 차별에 기초한 중앙 중심의 사고라고 할 수 있다. 미셸 푸코에 따르면, 주류(major)는 언제나 주변부(minor)를 통해 자신의 정체성을 창조해 낸다. 마찬가지로, 서울은 주변부인 시골(지방)을 통해 자신의 정체성을 확보한다. 서울은 시골이라는 주변부를 창조해 냄으로써 ‘문명’, ‘문화’, ‘개인 곳’으로서 자신의 정체성을 갖으며, 반대로 시골은 ‘무식’, ‘무지’, ‘덜 개인 곳’으로서 이미지화된다. 그런데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사실이 있다. 시골은 서울에 의해 이처럼 열등한 어떤 것으로 주변부화되는 동시에 또한 신비화되기도 한다는 것이다. 서울에 의해 시골은 터무니없이 낭만화되고 신비화된다. 그러한 과정에서 시골은 태고의 신비를 지닌 잃어버린 고향이자 자아회복의 대명사로 왜곡되기도 한다.²⁶⁾

위의 시조에서 암소 타고 질장군 메고 취하여 춤추는 ‘질박천진’, ‘태고 순풍’의 세계는 서울이 만들어 내는 신비화된 시골의 이미지들이다. 그런데, 이 신비한 이미지 속에는 항상 ‘무식’, ‘무지’, ‘덜 개인 곳’으로서의 시골이라는 부정의 이미지가 은폐된 채 공존하기 마련이다. 이를 잘 드러내 주는 것이 바로 ‘愚氓’이란 시어이다. ‘우맹’은 한편으로는 왕화가 닿지 않는 세계에 사는 무식하고 무지한 인간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 인위의 손길이 닿지 않아 때 묻지 않은 소박성을 지닌 인간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25) 정약용 지, 박석무 역, 『유배지에서 보낸 편지』, 시인사, 1980, 126~127쪽.

26) 이훈상, 「타자로서의 ‘지방’과 중앙의 헤게모니」, 한국사연구회 편, 『한국지방사 연구의 현황과 과제』, 경인문화사, 2000, 381~382쪽 참조.

서울인의 전가시조에서 자영농의 세계를 표현하는 시어들은 언제나 이렇게 이중성을 갖는다. 우리에게 언제나 친근하게 다가오는 ‘시골’이라는 말 속에 긍정과 부정으로서의 이중적 이미지가 내포되어 있는 것처럼, 전가시조에서 즐겨 사용하는 ‘고사리’, ‘질가마’, ‘팔죽’, ‘닭찜’, ‘게찜’, ‘올벼’ 등의 친근한 생활 언어들에도 항상 두 얼굴이 같이 존재하고 있다.²⁷⁾ 그리고 그 두 얼굴의 이미지는 근원적으로 ‘중앙’으로서의 서울의 시선이 만들어 내고 있다.

한편, 전가시조가 창조한 시골은 ‘또 다른 이름의 서울’이라는 이중성도 갖는다. 시골은 서울인에게 전원이란 이름의 새로운 취미(野趣)를 제공하나 그것은 어떤 경우 서울의 변용이기도 하였다. 전가시조의 주변에서 지어진 다음 시조들을 보자.

孫約正은 點心 출히고 李風憲은 酒肴를 장만호소
거문고 伽倻이고 奚琴 琵琶 笛 簫 杖鼓 舞工人으란 禹堂長이 드려오시
글짓고 노래부르기와 女妓女花看으란 내 다 담당호리라 (진청, 525)

大丈夫 | 功成身退호야 林泉에 집을 짓고 萬卷書를 빚하 두고
종호여 밭 갈리고 甫羅미 질들이고 千金駿駒 알피 먹고 金樽에 술을 두고
絶代佳人 곁에 두고 碧梧桐 검은고에 南風詩 놀리호며 太平烟月에 醉호여 누
엇신이
암아도 平生 희을 일이 잇분인가 호노라 (해육, 이정보)

무명씨의 사설시조는 전가시조에서 자주 보이는 시골의 계회를 소재로 취한 것이다. 이런 시조들은 대체로 여자들의 화전놀이처럼 각자가 한 가지씩 음식 재료를 맡아 준비하여 산 좋고 물 좋은 곳을 찾아 자리를 정한

27) 다음 시조에 나오는 먹거리들의 이미지도 마찬가지다. “대초불 불근 골에 밤은 어이 뜻 드르며 벼 뵈 그르헤 게논 어니 느리난고 술 닉자 채장스 도라가니 아니 먹고 어이리” (진청, 무씨명, 田家); “오려 고개 속고 열무우 술져논디 낙시에 고기 물고 게논 어니 느리논고 아마도 農家에 물근 맛시 이쵸흔가 호노라” (上同).

뒤 갖은 음식을 장만하여 실컷 먹고 즐기는 소박한 시골의 놀이를 형상화한다. 그런데 이 시조에서는 그러한 소박한 놀이가 기생의 치마를 들추고 꽃을 보는(花看), 소위 풍류방의 취미와 잘 구분되지 않는다. 이러한 현상은 이정보의 시조에서도 똑같이 보인다. 이 시조가 펼쳐내고 있는 시골의 취미는 <장안협소행>과 같은 작품에 나오는 시정 협객의 세계와 별 차이가 없다. 그렇다면 전가시조에 왜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것일까? 필자는 그 실마리를 별서에서 찾아보고자 한다.

서울양반들이 전가시조를 통해 형상화하고 있는 시골은 다름 아닌 근기의 별서였다. 그런데 그 별서가 있는 시골이란 곳이 지역적으로 매우 특수한 곳이었다.

양반들이 별서를 정할 때 일차적으로 고려했던 것은 도성과의 접근성이었다. 그래서 별서는 대부분 한나절 안으로 서울에 도달할 수 있는 가까운 거리에 있어야만 했다. 별서는 또한 지방의 향제로부터 올라오는 곡식과 생필품을 쉽게 공급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이유에서도 교통의 요지가 선호되었다. 근기의 별서가 주로 한강 수로를 이용할 수 있는 나루가 발전한 강변 부근이나 驛이 발달한 대로 주변에 포진해 있었던 것은 그 때문이었다. 위의 이정보만 하더라도 탄천과 한강이 만나는 학탄에 별서가 있었다. 학탄은 거리상 강만 건너면 바로 도성에 닿을 수 있는 곳이었고²⁸⁾, 또 주 위에는 송파나루·광나루 등 큰 나루가 발전된 교통의 요지이기도 하였다.²⁹⁾ 이러한 현상은 이정보 외에도 전가시조를 남기고 있는 모든 작가에게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사실이다. 조존성의 별서가 있던 용산³⁰⁾, 김광

28) 다음의 이정보의 시조 한 수가 이러한 사실을 극명하게 보여준다. “臨高臺 臨高臺 訶야 長安을 굽어본이/ 雲裏帝城은 雙鳳關이요 雨中春樹는 萬人家 | 라/ 암아도 繁華民物이 太平인가 訶노라”.

29) 최근 이상원은 이정보 시조의 풍류세계를 고찰하면서 그의 은거지가 교통이 발달한 한강변의 학탄이었다는 사실에 큰 의미를 부여하고 접근하였다(이상원, 『조선시대 시가사의 구도와 시각』, 보고사, 2004, 120~128쪽.).

30) 용산강 지역은 경상·강원·충청·경기도 등지의 세곡을 한강 상류로부터 실어오는 점운선의 종착점이었다. 서울 양반들의 향제 산물, 다시 말해 지주 소작료는 대부분 용산·마포·

옥과 김창업의 별서가 있던 행주와 화전³¹⁾, 조현명의 별서가 있던 해등촌(창동), 채유후의 별서가 있던 양주의 漢音³²⁾, 남구만의 별서가 있던 광나루 인근의 藥泉과 용인의 慕賢³³⁾, 이재의 별서가 있던 高陽 등은 모두 한강수로나 육로를 이용하여 한나절이면 도성에 접근할 수 있었던 곳이었다. 이렇게 볼 때, 전가시조의 시골은 실상은 서울의 연장이었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그것은 서울인이 서울 속에 만들어 놓은 허구적 세계라고도 할 수 있겠다. 전가시조의 시골 속에 돈과 유흥이 들어오는 것도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한편, 서울은 이 같은 허구의 시골을 통해 자신들의 권력을 지속적으로 은폐하는 효과를 얻어 왔다. 정약용은 앞에서 언급했던 편지에서 이렇게 말한 바 있다: “무릇 사대부 집안의 법도는 벼슬길이 한창 위로 올라 권세를 날릴 때에는 즉시 산비탈에 셋집을 내어 살면서 처사로서의 본색을 잃지 않아야 한다.” 여기서 이른바 ‘셋집’은 다름 아닌 별서이다. 별서는 달리 말해 시골이 처사적 취미(野趣)라는 이름으로 세도가의 ‘권세’를 포장하

서강 등지에 거점을 두고 있던 경강 뱃사람들이 운송하였다. 용산 지역에는 양반의 별서가 특히 발달하였는데 그곳은 지방 농장에서 운송되어 온 소작료의 집결지였다.

31) 행주·화전 앞의 한강은 물길이 얇고 물 흐름도 느려 마치 호수 같은 느낌을 주었으므로 幸湖 혹은 杏湖로 불렸다. 이곳 강가에는 이른바 ‘갈땅’이라고 부르는 습지가 있었는데, 이곳 어부들의 겨울철 부업은 이 습지에서 나는 갈대로 공예품을 만들어 서울에 내다 파는 일이었다. 이것들을 지고 화전—수색—신촌—굴레방다리를 거쳐 서울 새문안 시장까지 걸어갔다고 한다. 그만큼 도성과 가까운 거리였다.

32) 미음은 북한강과 남한강이 합수하여 흐르는 곳이기 때문에 남북에서 사람들이 많이 모였고, 특히 뗏목 영업과 관련하여 크게 붐비던 곳이었다. 그런 연유로 인근 도미진과 더 붙어 주막거리로 유명했으며, 특히 미음의 썩정네 주막집은 썩쟁이(들병이)가 8~9명이나 있는 가장 유명한 곳이었다고 한다(주강현, 『2장 생활과 풍습』, 강진갑, 류기선외, 『아차산의 역사와 문화유산』, 구리시·구리문화원, 1994, 268~277쪽.).

33) 남구만은 41세에 광진 아차산 근처 藥水巖에 집을 짓고 호를 藥泉이라고 하였다(『藥泉年譜』(정문연소장본)). 아차산 일대는 강상수로가 발전하여 이를 통한 물산이 집결되던 곳이었다. 이 지역에는 잘 발달된 3개의 나무가 있었다. 삼전도와 송파진, 광나루가 그것이다. 광나루를 건너면 판교를 거쳐 용인으로 가는 길이 있었고, 또 남한산성을 우회하여 용인으로 내려가는 길도 있었다. 따라서 아차산 별서는 서울과의 접근성 외에 용인 별서와 연결되는 매개지로서 의미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고 은폐해 왔던 것이다.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의 핵심에 무엇이 있었는가? 그것은 바로 ‘중양’으로서의 서울이었다.

5. 마무리

이상에서 필자는 ‘중양’으로서의 서울이라는 키워드를 중심으로 하여 17세기 이후 재경양반들에 의해 창작된 전가시조의 자영농 형상과 미의식을 탐구해 보았다. 그것은 또한 지역성을 기반으로 하여 전가시조의 실상을 이해해 보고자 하는 시도이기도 하였다.

필자가 이처럼 지역성을 기반으로 하여 전가시조에 접근하고자 했던 것은 선행연구에서 전가시조 전체를 재지사족의 사회적 경험으로 일반화하여 설명하려 했던 시도가 적절하지 않았다고 판단해서이다. 이렇게 지역성을 중시한 결과 당연히 시대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깊이 천착할 기회를 갖지 못했다. 따라서 17세기를 기점으로 하여 18세기에 걸치는 시기에 중양과 지방사회에서 왜 양반 및 중인 가객들에 의해 전가시조 내지는 ‘자영농시가’가 연달아 창조되어 나왔는가 하는 좀더 거시적인 질문에 대해서는 선행연구자들이 제시하고 있는 시각 이상의 답변이 준비되어 있지 못하다.

다만 여기에서 한 가지 밝히고 싶은 것이 있는데, 그것은 이 작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필자가 내내 견지하고자 했던 하나의 문제의식과 관련해서이다. 일찍이 신경숙은 규방가사를 다룬 글에서, ‘모든 문학은 지방문학’이라고 한 바 있다.³⁴⁾ 필자 또한 동일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전가시조를 이해하려 하였다. 그것은 곧 지역적으로나 계급·계층적으로 다양하게 존재하는 전가시조와 이른바 가사를 포함한 ‘자영농시가’를 꼭 시대적이고 역사적인 시각으로 획일화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라는 생각이기도 하였

34) 신경숙, 「규방가사, 그 탄식 시편을 읽는 방법」, 『국제어문』 25집, 국제어문학회, 2002.

다. 전가시조의 연구사에서도 나타나듯이, 우리가 어떤 문학범주를 시대적인 시각으로 접근할 때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어느 하나가 전체를 대표한다는 생각에 빠질 가능성이 있다. 그 과정에서 다양한 양상으로 존재하는 것들을 일반화시켜 실상을 왜곡하기도 한다. 필자는 이러한 사고를 극복하는 데 ‘지역문학’적 시각이 유용하다고 생각하였다. 왜냐하면 ‘모든 문학은 지방문학’이기 때문이다.

참고문헌

1. 자료

- 金光煜, 『竹所集』(국립중앙도서관소장본).
 金昌業, 『老稼齋集』(문집총간 175).
 申欽, 『象村集』.
 延安李氏館洞派 編, 『延李文庫』, 驪江出版社, 1987.
 李惟泰, 『草廬集』(문집총간 118).
 趙泰東 編, 『楊山趙氏世稿』.
 趙顯命, 『歸鹿集』(문집총간 213).
 蔡裕後, 『湖洲先生集』(문집총간 101).
 『安東金氏世譜』, 정문연 소장본(MF35-2083~5), 1833년(순조 33).
 『藥泉年譜』(정문연소장본).
 『楊州趙氏族譜』, 정문연 소장본(MF35-2086), 1743년(영조 19).
 『延安李氏館洞派譜』.
 『宜寧南氏族譜』, 1900년(光武 4).
 『平康蔡氏族譜』, 정문연 소장본(MF35-2148~50), 1875년(고종 12).
 『豐壤趙氏舊譜 合編』, 보경문화사, 1990.
 『韓國地理志叢書 邑誌7』(충청도①), 아세아문화사, 1984.
 정약용 저, 박석무 역, 『유배지에서 보낸 편지』, 시인사, 1980.

2. 논저

- 권순희, 「전가시조의 미적 특질과 사적 전개 양상」,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0.

- 권순희, 「〈短歌三關〉의 創作 脈絡과 詩的 志向」, 『韓國詩歌研究』 제8집, 한국시가학회, 2000.
- 김병국, 「한국 전원문학의 전통과 그 현대적 변이 양상」, 『한국문화』 7, 서울대 한국문화연구소, 1986.
- 김석희, 『존재 위백규의 문학연구-18세기 향촌사족층의 삶과 문학』, 이회문화사, 1995.
- 김석희, 『조선후기 시가 연구』, 월인, 2003.
- 김용철, 「〈누항사〉의 자영농 형상과 17세기 자영농시가의 성립」, 정재호 편, 『한국 가사문학 연구』, 태학사, 1996.
- 김용철, 「17세기 자영농시가의 성립과 특성」, 신영명·우응순 외, 『조선중기 시가와 자연』, 태학사, 2002.
- 김창원, 「조선후기 사족창작 농부가류 가사의 작가의식 연구」, 고려대 석사논문, 1993.
- 김학수, 「제천 연안이씨 명암가문의 가계와 사회경제적 기반」, 『고문서집성』 55, 한국정신문화연구원, 2001.
- 김홍규, 「16·17세기 강호시조의 변모와 전가시조의 형성」, 『어문논집』 35, 고려대학교 국어국문학연구회, 1996.
- 성기옥, 「사대부 시가에 수용된 신선모티프의 시적 기능」, 한국고전문학회 편, 『국문학과 자연』, 태학사, 1998.
- 신경숙, 「규방가사, 그 탄식 시편을 읽는 방법」, 『국제어문』 25집, 국제어문학회, 2002.
- 신영명, 「17세기 강호시조에 나타난 田園과 田家の 형상」, 『한국시가연구』 제6집, 한국시가학회, 2000.
- 안혜진, 「강호가사의 변모과정 연구-누정계와 초당계 가사를 중심으로」, 이화여대 석사논문, 1998.
- 안혜진, 「18세기 향촌사족 가사 연구」, 이화여대 박사논문, 2004.
- 여기현, 「강호인식의 한 양상」, 『반교어문논집』 제1집, 반교어문연구회, 1988.
- 이상원, 「17세기 시조 연구」, 고려대 박사논문, 1998.
- 이상원, 『조선시대 시가사의 구도와 시각』, 보고사, 2004.
- 이종묵, 「16세기 한강에서의 宴會와 風流」, 한국시가학회 편, 『詩歌史와 藝術史의

관련 양상 II』, 보고사, 2002.

이형대, 「조선조 국문시가의 도연명 수용양상과 그 역사적 성격」, 고려대 석사학위논문, 1991.

이형대, 『한국 고전시가와 인물형상의 동아시아적 변전』, 소명출판, 2002.

이훈상, 「타자로서의 ‘지방’과 중앙의 헤게모니」, 한국사연구회 편, 『한국지방사 연구의 현황과 과제』, 경인문화사, 2000.

정승모, 「경지·향제·별서와 조선후기문화의 지역성」, 정두희 편, 『한국사에 있어서 지방과 중앙』, 서강대학교 출판부, 2003.

주강현, 「생활과 풍습」, 강진갑, 류기선의, 『아차산의 역사와 문화유산』, 구리시·구리문화원, 1994.

최진원, 「강호가도와 산수시·전원시」, 『도남학보』 제14집, 도남학회, 1994.

최진원, 『국문학과 자연』, 성균관대 출판부, 1977.

<투고일 : 2005. 12. 30. 심사일 : 2006. 2. 3. 심사완료일 2006. 2. 15.>

K C I

<Abstract>

Social History of Forming the Rural SHIJO[田家時調] in Seoul and Gyeonggi Area in the 17-8th Century

Kim, Chang-won

The existing studies on the historical background of a rural SHIJO (a traditional Korean verse) overlook its regional characteristics. From the regional point of view, the rural SHIJOs are found across the country, but the importance of Seoul and Gyeonggi area is greater than that of other areas in terms of the number of works and writers.

One of the major characteristics of the rural SHIJO in Seoul and Gyeonggi area is that its delineation focuses on the experience of independent farmers(自營農). It is a form of literature created based on the very concrete experience resulting from the cottage (BYEOLSE, 別墅) management. Under the delineations of the independent farmers and their experiences found in the rural SHIJO, there resided the power of Seoul, that is, a 'center'.

The rural SHIJO concentrates on depicting the naive sense of beauty and the rural world. SHIJO is full of romanticism, and all the independent farmers (main characters of SHIJO) exist in the romantic world called a "country". This romantic space called as a 'country' is significantly different from the space of the independent farmers which local noblemen depict in poems or verses.

The 'country' described in SHIJO exists in contrast with the Seoul which represents the culture, craving and worldly lives. At the same time, the 'country' also has the dualism, that is, it is 'another Seoul in a different name'. The 'country' which the noblemen of Seoul described in

the rural SHJO refers to the cottage in Gyeonggi area, and this results from the fact that most of the cottages in Gyeonggi area resided at the riverside which had the developed ferries, or near a broad street which had the developed stations.

Keywords : rural SHJO, nobleman in Seoul, Gyeonggi area, cottage, independent farmer, center, country, regional characteristics, romantic space, worldly Seoul.

K C I